

NEWS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온디바이스시 합류...광주 시반도체 더 강해진다

▶1면 '광주 선거대책위'서 계속

양부남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파고를 넘고 21대 대선 출범식을 하게 돼 기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꼭 투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다.

박지현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광주시민은 내란을 극복했고, 마침내 어제 사법부대타를 꺾었다"며 "계엄, 파면, 사법 쿠데타를 이겨낸 근원에는 광주시민의 5·18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래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은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로 12·3 비상계엄을 우리가 진압했다"며 "이제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고, 6월 3일에 승리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상임고문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를 얻는 것과, 투표율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자"고 강조했다.

이정희 상임고문은 "내란 세력이 침입한 이 모든 일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며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11일 전남을 방문해 경정 투어를 진행한 뒤, 오는 17~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집중 유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면 '동구청~조선대'서 계속

이번 확장 공사로 인도의 폭이 4.5m로 늘어난다. 해당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고 자전거길, 인도 등이 설치된다.

다만 공사 기간 차선이 1차선 축소 운영됨에 따라 우회하거나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

광주중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용역설계를 토대로 이달 중 화단, 주변 시설 등을 이설·철거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동구청사 주차면 수가 154개에서 90여개로 줄어 응급차량과 특수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 주차면은 주차타워부지로 옮긴다.

시, 딥엑스·노타와 협약...모빌리티·가전에 AI적용기술 개발 10개 반도체 설계기업 유치 캠퍼스 집적...'AI 대표도시' 가속

'AI(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에 온디바이스(AI)기업이 합류, 지역 대표산업인 모빌리티와 가전에 AI반도체 기술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온디바이스(AI) 선도기업 ㈜딥엑스, AI 경량화 전문기업 ㈜노타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280~281번째)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복원 ㈜딥

엑스 대표이사, 채명수 ㈜노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광제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딥엑스는 전자기기에 탑재하는 AI반도체를, ㈜노타는 인공지능(AI)이 잘 작동하도록 작고 빠른 게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한다.

광주시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이

전자기에서 AI가 작동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트렌드에 따라 이번 협약이 지역 대표산업인 모빌리티와 가전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AI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광주 전략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무소 등 설립, 인공지능(AI)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 전문인력 교육과 취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딥엑스의 유치로 총 10개 캠퍼스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 이중 2개 기업은 최근 지역사무소의 문을 열거나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는 광주로 이전한 캠퍼스기업들이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광주에 뿌리내려 지역 산업현장의 AI 기술 적용을 통한 기업 성장과 AI 기업의 광주 유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AI) 최적화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반도체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소형 기에서도 원활히 구동되도록 하는 경량화 기술에 강점이 있다. 노타는 특히 딥엑스

와 수요기업 사이의 가교역할로써 회사가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하고 인공지능(AI)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강기정 시장은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중심축인 하드웨어(반도체)와 소프트웨어(플랫폼) 선두 주자들의 합류로 광주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AI인프라-기업-인재를 기반한 AI실증 중심도시 광주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투표참여 캠페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 이후 공직자들과 '광주시 투표참여 캠페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에 김명규 이사장에 송진희 호남대학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사장에 김명규(53) 전 극단 광대무변 대표와 이사장에 송진희(66)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목포 문태고와 중앙대 예술대학 영화학 학사를 졸업했으며, 조선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스테이지엑스이엔티 대표, ㈜광대무변 연영제작사 대표 등을 역임했다.

'파우스트' 등 연극 20여편에 출연했으며, 1998년 영화 '남자의 향기'를 비롯해 '미녀는 괴로워', '화려한 휴가' 등 스크린에서도 활동했다.

송 신임 이사장은 원광대와 독일 국립문서정보과학대에서 각각 디자



김명규 송진희

인을 전공하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제7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호남대 문화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 김다경 기자 alsalsdl94@gwangnam.co.kr

강진 성전산단,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 구축

산업부 선정,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4년간 180억 투입, 국고 건의 활동 성과...미래차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가 구축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공모사업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과제에서 영암의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 연구센터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2028년까지 4년 동안 180억 원(국비 77억·지방비 103억)을 투입해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연속형 단조

기와 스피닝 단조기, 시제품 제작 지원동 구축, 기업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조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이다. 평탄한 공구 사이에 소재를 놓고 위치를 바꿔 두들기며 만드는 것을 자유단조라 하고, 일정한 모양으로 요각한 금형 사이에 소재를 놓고 두들겨서 만드는 것을 형단조라 한다.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비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고효율 부품의 시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와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고내구성 및 경량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에 대한 기술 혁신과 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연속형 단조 설비 도입을 통해 공정 자동화와 경량·고강도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조 부품사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 협업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법원, 내주 '내란재판'尹 출석 모습 공개

지상출입 결정...포도라인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

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대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12일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포도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취재진이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포도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임의로 설치해왔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